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사람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 사이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누가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창 12:3)고 단언하셨다. 누구의 저주가 더 효력이 있겠는가? 물론 아브라함을 향한 다른 사람의 저주는 그냥 소리로 끝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받아 아브라함을 저주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사이의 대화를 리브가는 자신이 발설한 저주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저주란 단어는 다만 추측의 말 중 하나일 뿐이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런 -가상적-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그런 저주가 -정말 말해진다면- 자신에게 들리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염려는 기우가 되었다. 이삭은 속아넘어갔고 야곱을 축복했다(창 27:27~29). 그리고 이 축복은 그대로 고정되고 말았다(창 28:1).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리브가에게 홀려가 고생을 만들어낼 저주는 없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야곱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삭의 저주를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주의 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해야 한다. 또 정말 그 저주가 리브가에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야곱의 생애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퍼부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주에 관해서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삭이 이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한 것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본문은 계속 보여준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처럼 거부가 되어 돌아온 것은 축복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주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인생을 주관하는 다른 세력은 없다.



신명기에 기록돼 있는 저주를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가계저주론자들이 신자가 저주 아래 살 수 있음을 증언한다고 설명하는 신명기 28장 16~68절을 보자. 신명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직접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약시대의 주장이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들이 것처럼 한 번 분석해보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단순한 저주목록이 아니다. 본문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나 힘으로서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거의 매 절마다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놓쳐서는 안된다.